

천칠봉 · 천광호 부자전 열린다

전주 기린미술관서 13일~10월 15일 개최

전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은 오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년 전에 작고한 비원과 화가 천칠봉 작가의 40여점과 올해 70세가 되는 아들 민중미술가 천광호 작가의 30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2024년 우수기획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천칠봉·천광호 부자전은 지난 번에 전시한 홍순무·홍용표 부자전에 이어 기린미술관 부자전 시리즈 두 번째 작품전이다. 천칠봉 작가는 전주 출생으로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이 독학으로 화가의 길을 걸었다.

1963년 제1회 목우회공모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화단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중기록화를 다수 제작했으며, 1977년 일본 대판의 고려현대미술관 개관 초대전에 출품하고 프랑스 스케치 여행을 하는 등 일생을 구상화가로 일관했다.

그의 작품은 거의 모두 한국의 실경산수

를 그린 풍경화로서 인적이 없는 고요한 계곡과 산을 주로 택해 그렸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더 이상의 미화나 비하 없이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성실하고 담담하게 화폭에 담았다.

그의 아들 천광호 작가는 민중화가로서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시대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공공미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자신의 미술 재능을 바탕으로 벽화 등 공공미술 작품, 그림, 기타 조형물을 제작, 보존, 보수하고 학교, 병원, 유치원 등 대중들이 이용하는 다중 집합 장소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70~80년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위해, 90년대에는 노숙인들을 위해,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과 노숙인센터에 작품 200점을 기증하여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2000년 대 초에는 대구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그들의 생활공간에 동료 미술인들의 협조를 받아 그림 300점을 모범재소자들과 함께 직접 걸어 주었다.

2024년 3월에는 전태일 열사 대구기념관



천칠봉 · 천광호 부자전 포스터

건립을 위한 작품 기증 전시를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전주 기린미술관 기획 전시에서도 아버지 고 천칠봉 화백의 모교에 후학들을 위한 작품 기증이 있으며, 관매대금 일부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광주서 16일 전주브랜드 공연 선보인다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광주공연마루서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16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2024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공연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전주에 새로 부임한 오만방자한 전라감사가 지방청의 시서선생 계월을 만나 풍류를 깨닫고 사랑을 찾는 이야기로, 우리의 소리 관소리에 뮤지컬적인 현대 요소를 더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퓨전 뮤지컬이다.

이 공연은 전주 지역을 상징하는 색다른 이야기를 매년 흥미롭게 담아내고 있는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의 13번째 공연으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상설 공연이다.

특히 전라관찰사, 선자청, 전주8경 등의 전주 문화 요소를 작품 속에 녹여 지역 문화와 전통을 현대인에게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있다.

전주한벽문화관 김철민 관장은 "광주 시민들에게 전주만의 이야기가 담긴 전주브랜드공연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며



2024년 전주브랜드공연 마당창극

"이를 통해 예술적 성취를 넘어 지역 간 문화적 유대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한가위 특별 광주상설공연은 오는 16~17일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모든 좌석은 무료며, 자세한 일정과 예매 관련 사항은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거장들의 하모니-한국화, 살아 숨 쉬다'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12일 개막... 한국화 과거 · 현재 · 미래 조망

정읍시립미술관은 오는 12일부터 특별기획전시 '거장들의 하모니-한국화, 살아 숨 쉬다'의 막을 올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독창성과 예술적 깊이를 조명하고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화가 지닌 정신성과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자리다.

특히 한국 전통 회화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기운생동'이라는 전통 사상을 주제로 한국화가 단순한 외형 묘사를 넘어서 내면의 정신성을 어떻게 담아왔는지를 탐구한다.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독창적인 한국미술의 매력을 선보이며, 근대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한국 고유성을 확립한 14인의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상범, 변관식, 김은호, 허백련 등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3개의 전시실에서 주제별로 감상할 수 있다.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한 1전시실, 채색의 아름다움을 조명한 2전시실, 현대적 변용을 주제로 한국화의 정체성과 현대의 연결점을 탐색하는 3전시실로 구성된다.

또한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인 '공생공존과 내가 그린 산수'를 통해 전통 회화의 미학을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전통



미술의 주요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작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읍을 찾는 관람객과 시민들이 한국화의 깊이와 매력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관람료는 일반 5000원, 정읍시민 2000원으로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김태환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체험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6일부터 한 달간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공예체험 행사인 'Craft-Street(C-s)'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와 '2024 한옥마을 Sing Street 버스킹'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먼저 9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버스킹 공연과 함께 섬유, 도자, 목공, 한지 등 다양한 공예품 체험이 진행된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에 맞춰 참가하는 국내의 기업인들을 위한 한지, 가죽 등의 공예품 체험을 10월 22~23일 야간에 운영한다.

앞서 전당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역의 공예

작가 40여 명을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 행사 기간 동안 △한지 노트 만들기 △한지 등 만들기 △천연 염색 쪽빛 손수건 만들기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태극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각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공예인들이 직접 지도하며 참가자들은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각자의 개성을 담은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공연 '동행' "추석 연휴 국립전주박물관서 한가위 민속놀이마당 즐겨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이 오는 7일 17시 명인홀에서 느루걸음 장애인양상블 연주단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이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누며, 장애인식개선과 다양한 음악 서비스 활동 통해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선율을 오래도록 연주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은 전석 무료며, 느루걸음 장애인양상블 연주단은 안경원 지휘자의 지휘로 13명의 단원들과 세르비아의 이발사, 헝가리무곡, 카르멘의 서곡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감동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14~18일 박물관 옥외뜨라에서 '2024 한가위 민속놀이마당'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 함께 즐기는 한가위'라는 주제로 가족이 함께 박물관을 찾아 옛 생활도구 체험, 민속놀이 체험, 전래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박물관에서 도량형과 맷돌, 지게 등 우리 전통 생활도구를 직접 만져보거나 사용법을 배워 체험하고, 또 사물놀이, 연날리기, 활쏘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놀이마당 오감'과 함께 준비한 전래놀이 부스에서는 비석치기와 말뚝이 딱딱이(공 주머니 던지기), 딱지치기 등 추억 속 놀이들과 고무신 던지기, 투호, 망줄기, 초대형 윷놀이, 강강술래 등 전래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모든 전래놀이를 체험하고 활동지에 스탬프를 받아 제출하면 1일 선착순 50명에 한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한가위 연휴의 모든 체험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정은=김태환 기자

성경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젖은 옷, 욕신거리는 허리, 밀려오는 피로...

'오늘은 설 걸 그랬나?'

그때, 밝은 미소로 음료를 건네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을 녹입니다.

"너무 고마워. 청년 같은 사람이 있어서 힘이 나네."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봉사는 이웃도, 나 자신도 더 사랑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점점 더 성숙해지는 내일의 내가 기다려집니다.



※ 본 이미지는 Playground AI로 생성했으며, 저작권은 신천지예수교회에 있습니다.